

광주·전남 ‘평균 저수율 77.6%’… “올봄 농업용수 공급 안정”

핵심 수리시설 4대호 저수율 68.2%...평년대비 104.1%

내달 2일부터 나주·광주·장성·담양 4대호 농업용수 공급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에 단비가 내리면서 주요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치를 웃돌아 올봄 농업용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공사가 관리 중인 광주·전남지역 전체 저수지 1055곳의 평균 저수율은 77.6%로 평년 대비 106.6% 높은 저수율을 기록했다.

특히 전남 전남 동부권과 남해안 일대에 많은 비가 내려 용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광주, 장성, 나주 등 전남 내륙지역은 강수량이 적어 저수율이 소폭 상승하는데 그

쳤다.

이날 오전 6시까지 집계된 누적 강수량은 여수 소리도가 173mm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수 거문도 163.5mm, 신안 하태도 105mm, 장흥 관산 88.5mm, 완도 신지도 87mm, 보성 78mm, 강진 72.7mm, 고흥 50.2mm, 목포 46.8mm, 광양 44.5mm, 광주 27.3mm, 영광 26.9mm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주요 곡창지대를 적셔 줄 핵심 수리시설인 광주·담양·장성·나주호 등 4대호는 안정적인 수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호는 광주시, 나주시, 장성·담양·함평·영

암군 일대 2만9593ha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농업기반 시설로 의존도가 높다.

이날 현재 광주·담양·장성·나주호 평균 저수율은 68.2%로 평년 대비 104.1% 높았다.

4대호별 저수율은 광주호 62.6%(평년대비 103.3%), 담양호 62.6%(103.3%), 나주호 67.45%(113%), 장성호 70.3%(100.4%)를 기록했다.

이 중 광주호는 전남 집중호우에 대비해 초당 3t씩 방류 조치가 이뤄져 저수율에 소폭 영향을 미쳤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본격 영농기를 맞아 내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나주·광주·장성·담양호 농업용수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성도남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올해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범기자



광주·전남지역 농업용 핵심 수리 시설인 4대호 전경. 시계방향 순서로 장성호·나주호·광주호·담양호.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민주당 전남 시장·군수 경선 내일부터 ‘스타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해남과 담양을 제외한 6·1지방선거 20곳의 시장·군수 예비후보 경선을 오는 28일부터 5월6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남은 명현관 군수가 단수 공천됐으며, 담양은 여론조사 조작 논란이 불거져 경선 일정이 보류됐다.

1차와 2차 경선 모두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한다.

오는 5월6일까지 ARS 투표 진행

해남 명현관 확정·담양 경선 보류

1차 경선으로 후보를 확정하는 목포·나주·광양·곡성·고흥·보성·화순·영암·함평·영광·장성·진도·신안 13곳은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간 투표를 한다.

2차 경선지역인 여수·순천·구례·완도·장흥·강진 6곳은 5월4일부터 5일까지, 무안은 5월5일부터 6일까지 경선을 치른다.

1차 경선 결과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발표하며, 2차 경선 결과는 5월6일 오전 11시·무안 7일 오전 11시에 각각 공개한다.

김재환기자

고2 치는 대입때 정시로 21% 뽑는다

학생 수 감소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예정인 2024학년도 대학입학 모집정원이 4800여명 줄었다.

줄어든 정원은 비수도권에 쏠려 있고 수도권은 반대로 소폭 늘어났다. 새 정부가 확대를 공약했던 수도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모집비율은 35.6%로 소폭 늘었으며 비수도권은 11.9% 수준에 그쳤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전국 4년제 대학 196개교의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모집인원은 34만4296명으로 전년도보다 4828명 감소했다.

권역별로 수도권 대학은 13만1782명에서 13만2307명으로 525명 증가했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21만7342명에서 21만1989명으로 5353명 감소했다.

2024학년도 수험생인 현 고2 학생 수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41만3882명이다. 대학 입학률이 통상 70%라는 점을 감안하면 28만 9717명으로 실제 대학 입학 예정 인원보다 모집정원이 5만4500여명 더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경호 대교협 대입지원실장은 “비수도권 대학의 모집정원 감소는 등록률 하락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학생을 우선 선발하기 위해 모집 일정이 빠른 수시전형 모집 비율이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은 수능(11월 17일) 이전에 선발하는 수시 전형을 통해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수도권 지역 대학들은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정시 모집 비율을 정책적으로 30~40% 이상 늘린 상태다.

전체 4년제 대학들은 학교 지필시험, 비교과 활동 등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수시 전형으로는 27만2032명(79.0%)을 선발하며, 수능 위주 정시 전형으로는 7만2264명(21.0%)을 뽑는다. 모집비율은 수시가 1.0%포인트 늘고, 정시가 1.0%포인트 줄었다.

권역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정시 모집비율이 35.6%, 수시는 64.4%로 정시가 0.3%포인트 높아졌다. 비수도권 대학들은 수시가 88.1%, 정시가 11.9%로 정시가 2.0%포인트(4907명) 줄었다.

세부 전형유형별로 다시 들여다보면 수도

학생 수 감소...모집인원 전년비 4828명 감소 수도권 모집인원 외려 증가...비수도권 감소

권 지역 대학에서는 수시 학생부위주 전형 모집 인원이 감소했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수도권 지역에서 지필시험 등 내신이 주된 학생부종합전형은 509명, 비교과를 함께 살피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511명 감소해 총 1020명이 줄었다. 반면 수능위주(593명), 실기·실적(454명), 논술(340명) 모집인원은 각각 소폭 증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능위주 전형에서 4204명이 급감했으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1672명을 덜 뽑는다. 논술위주는 142명 감소했고, 실기·실적(436명), 학생부교과(142명) 전형의 모집인원은 소폭 늘어났다.

교육부는 3년간 국고를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참가 자격으로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 전형의 모집 비율 30% 이상을 걸고 있다. 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지역 주요 16개 대학은 지난 2023학년도에 이미 정시 모집비율 40%를 충족했다.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회균형)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전체 모집인원 10% 이

상을 차지하도록 의무화되면서 관련 모집인원이 증가했다.

전체 대학들은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형 전형으로 3만6434명을 선발하며 이 중 70%는 정원의 선발이다. 전년도 3만4062명보다 2372명 늘어난 규모다.

수도권 대학에 권고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1만3785명을 선발하며 전년도 1만788명보다 2997명 늘었다. 모두 정원 내 전형이며 대학들은 수험생 교과 성적을 활용해 학교장 추천의 형태로 선발하게 된다.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전형 모집정원 비율이 상승하면서 관련 전형의 모집인원도 2만3816명으로 전년도 대비 2581명 늘었다. 전년도 대입부터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의무적으로 정원 40% 이상(강원·제주는 20%), 간호는 30%(강원·제주는 15%)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내고 자란 지역 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대학들은 올해 수시모집 원서를 오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받는다.

기동취재본부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